

↑ 코스피 2599.16 (+4.80)	↓ 코스닥 775.48 (-2.76)
↑ 금리 (미국 9년) 2.962 (+0.022)	↓ 환율 (원·달러) 1348.95 (-0.75)

m-커버스토리

韓 ‘딥페이크 공화국’ 음란물 피해 1위 오명

딥페이크가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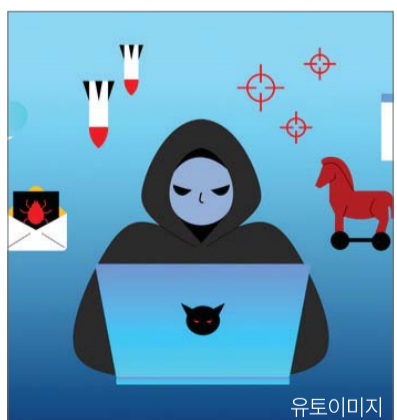
“한국이 딥페이크로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영국 BBC)
 “한국은 오랫동안 ‘불법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 (프랑스 르몽드)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1위’라는 오명을 썼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장 개인 53%가 한국인... 가수 1595건 3년간 피의자 절반 이상 10대 관련규제 미흡, 예산안도 줄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선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뒤늦은 대책 마련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대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0일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유도이미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타격이 된 한국인 가수는 1595건의 딥페이크물에 등장했고 조회 수는 561만회에 달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는 사이버 범죄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피해자는 인격이 파괴 당하며 일상 생활이 불가할 지경까지 이른다.

이에 BBC·월스트리트저널(WSJ)·르몽드 등 주요 외신은 최근 한국의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를 집중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10대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전체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324명(83.7%)은 10대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미흡해 국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특히 약한 규제 강도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함에도 운용인력은 6명 수준이다.

방통위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였지만 내년(2025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가 사후약방문 수준이다. 사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S와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

‘KT AICT 사업전략’ 간담회 새 도약 위해 MS와 전략적 협력 한국형 AI로 AI산업 경쟁력 강화



KT 대표 김영섭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국내를 넘어 세계의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을 선도할 것이며, ‘한국형 AI’로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

김영섭 KT 대표(사진)가 1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와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을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GPT-4o 기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언어모델(SLM) ‘파이(Phi) 3.5’ 기반 산업별 특화 모델 등을 통해 한국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지난 9월 말 MS와 5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AI·클라우드·IT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력이 나선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한국어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AX 전문기업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향

출하기 위해 MS와의 전략적 협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KT가 MS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MS는 글로벌 협력 경험이 풍부해 기업의 조직과 경영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라면서 “클라우드·데이터·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파트너사로 결정된 데 대해 “MS는 세계 정보통신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KT의 인프라와 시장 전문성, 국내에서의 경험과 잠재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아세안+3 참석한 韓·中·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의장국인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중국 리창 총리. 〈관련기사 2면〉 /뉴시스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 역대 세번째

1~8월 누계 총수입 396.7조 국가채무, 8조 늘어 1167.3조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기에 비해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총지출이 447조원으로 21조3000억원 증가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0조4000억원의 적

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해 1~8월 기준 역대 3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최대인 96조원 적자, 2022년에 8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으로, 올해 본예산 내 중앙정부 채무 예측치 1163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라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8월에도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 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상헌 “김건희 여사 기소? 한동훈, ‘여론 재판’ 열자는 건가”
 ▲ 김용현, 나카타니 일방위대신 취임 축하 첫 통화... “국방협력 지속 발전” /사진 뉴시스

▲ 합참의장 “북한, 남북 도로·철길 8월에 전체 차단... 감시 다되고 있었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군 소개 받았지만 관계 안 이어가”



▲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476곳서 실시 /사진 뉴시스
 ▲ 윤 지지율, 1%p 내린 24%로 다시 최저치... 부정평가 66%

한-아세안 관계, 최고단계 격상... AI·환경 등 협력범위 확장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선포

尹 대통령, 아세안 국가 정상회의 “아세안과 새로운 미래역사 쓸 것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 추진 5년간 아세안 인재 4만명 양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라오스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한일 정상 간 만남인 만큼, 양 정상은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 확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감 참석 “부실사업장 경공매·재구조화 추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신속 진행”

“가계대출이 8월 상당히 증가했지만,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루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막차수요가 몰려 가계부채 증가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9월 들어 둔화

이날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말 채무불이행자는 73만1111명에서 2024년 84만7797명으로 16% 증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며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이를 제한할



김병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우 저소득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부분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증가폭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이용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 개정돼 완성’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해선 “(법 개정) 앞서 인력을 이동시키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조금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

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져야 본점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날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지금 와서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T, 내년 1분기 ‘AX 전문기업’ 출범

▶▶ 1면 ‘MS와 글로벌 AI...’서 계속

‘AX 전략 펀드’ 조성, 생태계 확산 ‘이노베이션 센터’ 공동 설립키로

KT와 MS는 MS와 협력 중인 오픈A I의 GPT-4o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MS 자체 AI 소형언어모델인 파이 3.5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모델 학습을 위해 교육·역사·문화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KT의 서비스에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을 도입해 한국형 AI 시장 확대를 꾀한다.

내년 1분기에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AI 전환) 전문기업’도 출범한다. AX 혁신을 원하는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컨설팅·아키텍처·디자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AX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AX 전략 펀드’도 공동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도 내년에 공동 설립한다. 양사는 센터에서 AI·클라우드·미래 네트워크 관련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네트워크 현대화, 6G 분야 공동연구, 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산업별 AX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연구 개발도 병행한다.

양사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AI·클라우드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MS는 앞으로 5년 동안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KT 직원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MS와 함께 ‘AX 밸류체인’을 구축해 한국형 AI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해 기업 고객에게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제공한다.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와 ‘관리형 서비스공급자(MSP)’를 병행하는 ‘도털 클라우드 사업자’로 진화한다는 목표다.

또 국내외 다른 기술 선도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더 넓은 분야의 AX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이러한 MS와의 협업을 통해 5년간 누적 매출이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2027년부터는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KT 측은 공동 투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절반은 관련 인프라에, 나머지는 연구개발(R&D)과 마케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MS와의 협력으로 최고의 AI·클라우드 역량을 갖추게 되면 KT는 대한민국의 기업·개인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맞춤형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며 “KT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기자 hyem@

LG전자, EV 충전 등 B2B 확장... “2030년 매출 10조 목표”

〈기업간거래〉

B2B 중심 체질개선 방향 공유
의료용 모니터 분야 집중 육성
사이니지 등 캐시카우 사업 강화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앞세워 2030년까지 현재 매출의 두배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습니다.”

LG전자 비즈니스 솔루션(BS) 사업 본부가 10일 경기도 평택시 LG디지털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10조원 매출 규모로 키워낸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매출 가운데 B2B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4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 자리엔 LG전자장악환BS사업본부장(부사장), 백기문 ID사업부장(전무), 이윤석 IT사업부장(상무), 지인숙 마케팅담당(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악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은 “지난 66년간 축적해 온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고객과 고객이 거주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로 B2B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기존 기업·소비자간거래



LG전자 BS사업본부장 장악환 부사장이 10일 평택 디지털파크에서 LG전자의 비즈니스 솔루션(BS)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B2C)에서 B2B 중심으로의 사업 체질 변화를 위한 비전을 구체화했다.

먼저 호텔·병원 TV와 사이니지, 프리미엄 노트북 등 업계를 선도하는 캐시카우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용 모니터, 전기차 충전기를 핵심 신사업으로 육성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LG전자는 다양한 B2B 제품과 솔루션을 비롯해 전장, 냉난방공조(HVAC), 빌트인(Built-in) 가전, 첨단 자동 공장 솔루션 등 다양한 B2B 사업 역



200kW 급속 충전기와 실시간으로 전력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솔루션 ‘이센트릭(e-Centric)’

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실내 공간 뿐 아니라 모빌리티, 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체질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호텔·매장·기업·학교와 같은 다양한 고객군별 맞춤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IT 기기(LG 그램·모니터 등), 상업용 로봇, 전기차 충전기 등에 힘을 쏟는 중이다.

LG전자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 중인 올인원(All-In-One) LED, 마이크로 LED 등 프리미엄 파인피치(Fine-pitch, 픽셀 간격

2mm 이하) LED 사이니지 제품을 중심으로 공간별 맞춤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산 과정부터 화질까지 AI를 적용한 차세대 ‘LG 마이크로 LED’를 연내 출시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또 글로벌 B2B 기업들과 전략적 협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에는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인 리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용 토털 솔루션

공급을 위한 공동 영업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BS사업본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유니콘 사업으로 육성 중인 전기차(EV) 충전기를 내년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급속충전기 시장 내 8%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글로벌 탑티어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연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350kW 초급속 충전기 생산에 이어 유럽향 30kW, 7kW급 완속 충전기 2종을 출시한다.

LG전자는 ‘의료용 모니터’ 분야를 집중 육성해 5년 안에 글로벌 탑3 기업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제품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턴키 수주’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지난해 말 프랑스 공립 병원 구매자 연합과 4년간 1000만 유로(15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 나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의료용 모니터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등 의료 이미징 장비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롯데, 아프리카 시장 진출 타진... 신동빈 “카카오 원두생산 협력”

〈롯데그룹 회장〉

한·일 식품사 경영진, 가나 방문
카카오 묘목 13만 그루 전달

롯데가 아프리카 가나를 찾아 지속가능한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은 지난 8일 가나 수출 지역의 카카오 농장을 점검하고 카카오 묘목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과 묘목 기증은 한·일 롯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속가능 카카오 원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사의 대표 상품인 가나 초콜릿은 국내 출시 50주년, 일본에서는 60주년을 맞았다.

‘지속가능 카카오 원두 프로젝트’는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이 지속가능한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해 카카오 공급망을 점검하고 카카오 묘목 13만 그루를 기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묘목 기증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지주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해 농장의 재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한·일 롯데는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카카오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농법을 전 카카오 묘목과 비료를 지원한다. 나아가 아동 노동을 포함해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공정무역 실현에도 일조할 계획이

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롯데는 안정적으로 카카오를 공급받고 고품질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세계 2위 코코아 생산국인 가나에서는 최근 폭염과 병해로 인해 작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롯데는 현재 가나의 방역 시스템,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단시간 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

롯데는 ‘지속가능 카카오 원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양질의 카카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가나 현지 농장과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구매한다. 공동 구매 과정에서 절감한 비용의 일부는 ▲아동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농업 교육 프로

그램 개발 ▲기반 시설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 회장과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 대표, 이창엽 롯데푸드 대표, 다마스카 겐이치 롯데힐딩스 대표 등 한국과 일본 롯데 지주사 및 식품사 경영진은 ‘가나 코코아 보드(Ghana Cocoa Board)’에 카카오 묘목 13만 그루를 전달했다.

카카오 농장을 시찰하고 묘목 기증식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가나 초콜릿이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카카오를 생산해준 가나 카카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한·일 롯데가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카카오 원두 생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승연 “방산·조선 등 성공경험 확산... 100년 역사 써내려 갈 것”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창립 72주년 사내방송
안전 강조...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최선을 향한 끈질긴 집념으로 위기의 파고를 이겨내고 100년 한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0일 창립 72주년(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사내방송에서 창립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냉혹한 경영 환경 속에 모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성공 경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확산을 강조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의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의 신념과 지난 도전의 역사를 빛나게

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통합 원년을 맞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 2분기 기준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89% 증가한 260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7월에는 루마니아와 1조40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5% 증가했다.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MSAM 다기능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그

레이트 챌린저’로서의 위기 극복 방식을 강조했다. 시장의 사이클과 같은 흐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는 석유 화학과 에너지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작은 성공에 안주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 부문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일시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도록

록 연구개발과 현지화 전략 등 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등 지속적인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해양 부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해양사업 리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더 큰 성공을 독려했다.

이번 창립기념사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안전이다. 한화그룹은 화약사업을 모태로 하는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며 “대표이사서부터 임직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SNS 속 딥페이크 범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청소년 SNS 규제 확산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 학생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은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급증

10일 교육부가 지난달 기준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이는 총 833명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피해자는 학생(799명)이었고, 교원(31명)과 직원(3명)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10대 사이서 악의적 사용사례 증가 SNS 플랫폼 청소년 보호 규제 미비

이에 따라 문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건 관련피의자 387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중 10대는 324명(83.72%)이었다. 5명 중 4명꼴이다.

실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 등 3명을 붙잡았다. A군 등 10대 2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 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보관,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유도이미지

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딸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방어책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SNS 금지령 확산

이처럼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SNS가 꼽힌다. SNS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자다 보니 각종 유해 콘텐츠와 성범죄물이 난무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1분에 달한다.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데다 쇼츠, 릴스 등 숏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몰입도가 커져 중독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연내에 14~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

범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SNS 사용이 가능한 최소 연령에 대해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SNS에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주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도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실효성은 '글썩'

우리 정부도 최근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딥

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韓, 방지법 통과에도 실효성 부족 처벌 강화해도 범죄 억제에 한계 플랫폼업 "다각도 대책 마련 시급"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간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감형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한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면 관련 범죄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규제 보다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AI 관련 연구원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와 연령별 이용 제한 도입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명령어로 동영상 '쉽게'... 윤리적 해결책은 '난제'

동영상 제작 진입장벽 낮아졌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악용 우려 '증대' AI영상 판별 어려워, 식별기술 필요

오픈AI, 메타, 구글 등이 잇따라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중 서비스를 예고한 가운데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우려된다.

10일 메타가 지난 4일(현지시간) 동영상 생성형 AI '무비 젠(Movie Gen)'을 공개하고 내년 중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무비 젠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대 16초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한다. 앞서 공개된 구글의 '비오(Veo)'나 오픈AI의 '소라(SORA)'와는 달리 편집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가령 이용자가 특정 인물의 사진을 넣고 '수영하는



메타가 공개한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무비 젠'을 이용해 제작한 영상. 무비 젠은 간단한 명령어를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메타

모습을 만들어줘'라고 명령하면 해당 내용의 동영상이 생성 되는 식이다. 배경음악과 효과음 또한 추가할 수 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명령어만으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를 속속 내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존 객체를 촬영한 영상과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 쓰임에 따른 과급력이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동영상 제작을 일반인 또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창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반면 현재 이미지 생성형 AI만으로도 심각한 각종 가짜뉴스부터 금전 사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까지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동영상 생성형 AI들이 더욱 고도화 한 범죄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진다.

현재 기술로써는 일반 이용자가 일반 동영상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동영상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빅테크

기업들 또한 없다. 오픈AI는 소라를 공개한 후 소라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 조직인 '레드 팀'을 운영하며 유해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다며 AI 생성물에 식별 표지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식별 표지는 추가적인 기술을 통한 식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이용자들이 모든 영상을 일일이 AI 생성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업로드 플랫폼 등에서 식별 표지를 파악하고 명시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형 플랫폼이 아닌 개인 간 공유나 동영상에 특화되지 않은 SNS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간 만큼 부작용에 대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든 도전과 꿈이, 가능성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AI 반도체부터
에너지 솔루션까지

SK가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길이 되겠습니다

SK



INDUSTRIAL SUSTAINABILITY
DIGITAL PLATFORM
GREEN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CARBON MGMT
ADVANCED MATERIALS
INDUSTRIAL TRANSITION
SMR HYDROGEN-COMD
AI SERVICE PLATFORM
BIO·AI·BATTERY
ENERGY SOLUTION·HARDWARE
FUTURE

민주당 지도부에 달린 ‘금투세’… 내달 안팎으로 결정 전망

10·16 재보선, 국감 일정 소화에
금투세 관련 충분한 논의 어려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결론”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추측 제기
김민석·이언주, 유예 공개적 주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

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 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왔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초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

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명태균 ‘당원명부’ 입수 의혹… 與 “유출 경로 조사할 것”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지난 대선 경선 때 미래한국연구소에
당원 57만명 연락처 유출 지적 나와
與 “후보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 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

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尹 ‘3무 경제정책’으로 내수침체… 최상목 “동의 어려워”

(무비전·무계약·무책임의 자유방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감

산업 간 양극화·내수 부진 심화 지적
최상목 “복지지출 등 어느 해보다 높아
약자 위한 역할 제대로 했다고 자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끝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수성했지만... 시중은행 경쟁 속얕이

부산·광주은행, 지자체 금고 사수 대형은행, 막대한 자금력 앞세워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공략 강화 협력규모도 커져 정면대결 부담

주요 지방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를 다 시 따냈지만 앞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최근 진행된 부산시·광주시 금고 은행 입찰에서 금고 채유치에 성공했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낸 쾌거지만 시중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입찰을 늘리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일 광주시청에서 금고 지정심의 위원회를 열고 1금고 은행으로 광주은행을, 2금고 은행으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약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4년 동안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은 60년 연속으로 광주시 금고를 담당하게 됐지만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이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차기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광주은행을 재선정했다. /광주광역시

도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참여를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각 지자체가 3~4년마다 선정하는 금고 은행은 지자체별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은행이다. 막대한 자금을 연 1% 미만의 낮은 금리로 유치할 수 있고, 급여 이체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장기 거

래 고객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영업 확대를 꾀하는 대형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은 156건에 달하며, 낙찰률도 94.2%에 육박한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51건의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에 참여해

47%를 낙찰받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금고의 경우, 각 지자체의 연간 예산이 수조원(부산 16조원·대구 10조원·광주 8조원·울산 5조원)에 달하고 지역 내에서 갖는 상징성도 큰 만큼 시중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입찰을 늘리고 있다.

최근 광주시 금고 입찰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대거 뛰어들었고, 지난달 부산시 금고 입찰에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해 부산은행을 위협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진행된 울산광역시 금고 입찰에서도 경남은행이 국민은행을 간발의 차이로 꺾고 금고 은행 지위를 사수하기도 했다.

거점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각 지방은행은 광역시 금고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총 100점의 배점 가운데 89점을 금리·신용도 등 공통항목으로, 11점을 자율 지정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각 은행이 공통 항목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는 만큼 지자체 출연금 규모와 지역 내 공헌도 등이 포함되는 자율 지정 항목에서 당락이 갈린다.

아직까지는 각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공헌도를 바탕으로 금고 은행 지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협력사업비 규모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력 차이가 큰 대형은행과의 정면대결이 어려운 만큼, 각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 내 공헌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를 비롯한 자본력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밀릴 수밖에 없고, 시중은행이 제시하는 협력비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각 지방은행장들이 금고 선정 과정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점포 줄이는 저축은행, 업황악화에 체질개선 속도

작년말 대비 점포 11곳 줄어 265곳 인력도 줄이고, 비대면 창구 강화

저축은행이 점포와 임직원을 줄이면서 체질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황이 나빠진 만큼 효율성에 방점을 둔 행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일선 저축은행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점포는 265곳이다. 지난해 말(276곳) 대비 11곳 줄었다. 임직원도 225명 줄어든 9656명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임직원 수가 96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올해 지점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SBI·OK저축은행이다. 각각 2곳씩 영업을 중단했다. 이어 DB·신한·용창·JT저축은행 등 4곳이 지점을 1곳씩 줄였으며 폐폐저축은행과 더케이저축은행



Chat GPT가 생성한 '디지털전환' 이미지.

은 지역사무소와 출장소를 1곳씩 없다. 비대면 창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점포를 정리했다.

인력도 감소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뮤온저축은행)의 임직원은 3109명으로 전년 말(3192명) 대비 83명 줄었다. 전체 저축은행 이탈 인력의 36.8%를 차지한다. 이 중 임직원이 가

장 많이 줄어든 곳은 OK저축은행이다. 반년간 30명 감소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22명) ▲한국투자저축은행(14명) ▲애뮤온저축은행(9명) ▲SBI저축은행(8명) 순이다.

업계에서는 지점과 인력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디지털전환(DT)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인프라 확보 과정에서 계약직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며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환경에 은행, 증권사로 이직도 활발하다.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아진 데다 미래세대 확보를 위해선 디지털환경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은행권도 대면 창구는 줄이고 있다"며 "업황 악화에 효율성을 요구하는 기조가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대 금융지주(KB·하나·신한·우리금융지주)의 점포수는 5982곳이

다. 6개월간 18곳 감소했다. 해당 기간 해외 점포는 6곳 늘어났다. 국내 지점만 살펴보면 24곳 감소한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별도의 전산망이 없는 만큼 중앙회 차원의 디지털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는 네트워크 APT장비 고도화 추진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디지털 보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저축은행은 효율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수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영업 여건이 넉넉치 않은 만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강화는 물론 신용평가모형 및 보안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디지털전환은 금융권 내에서도 늦은 편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카드

제10회 봄 프로젝트 성료 청소년 작가 24명 후원

KB국민카드가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24명을 후원했다.

KB국민카드는 '제10회 봄(Seeing&Spri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떠오르는 꿈'을 주제로 주요 작품 50점을 공개했다.

이번 후원 대상은 밀알복지재단과 미술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지난 2월 16일까지 모집했다. /김정산 기자

우리은행

국내 첫 NFC 기능 활용 TAP 이체 서비스 출시

우리은행은 10일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오프라인 간편이체 서비스 'TAP(탭) 이체'를 출시했다.

'TAP이체'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이체서비스다. 사용자간 스마트폰 뒷면을 서로 맞대면 별도의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사전에 등록된 우리은행 계좌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우리은행 계좌 보유 고객은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삼성윌렛 앱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계좌번호를 일일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 계좌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착오송금의 위험이 없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집값 29주 연속 ↑... 상승폭은 둔화

래미안원베일리, 두달새 4.5억 ↑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9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0.1%였고 3주째 상승폭이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서대문구

(0.15%→0.13%)가 북아현·홍은동, 중구(0.12%→0.13%)는 신당·황학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마포구(0.15%→0.17%)는 신공덕·염리동 대단지, 용산구(0.14%→0.16%)는 한강로·이촌동, 성동구(0.14%→0.15%)는 성수·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7%→0.15%)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강동구(0.06%→0.11%)가 명일·암사동 주요 단지, 강남구(0.18%→0.20%)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

(0.13%→0.14%)는 당산·문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도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더샵'은 9월 전용면적 59㎡가 9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9억 5000만원) 대비 2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47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4억 5000만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1로 전주(101.2)보다 0.1포인트 내렸다. 9월 셋

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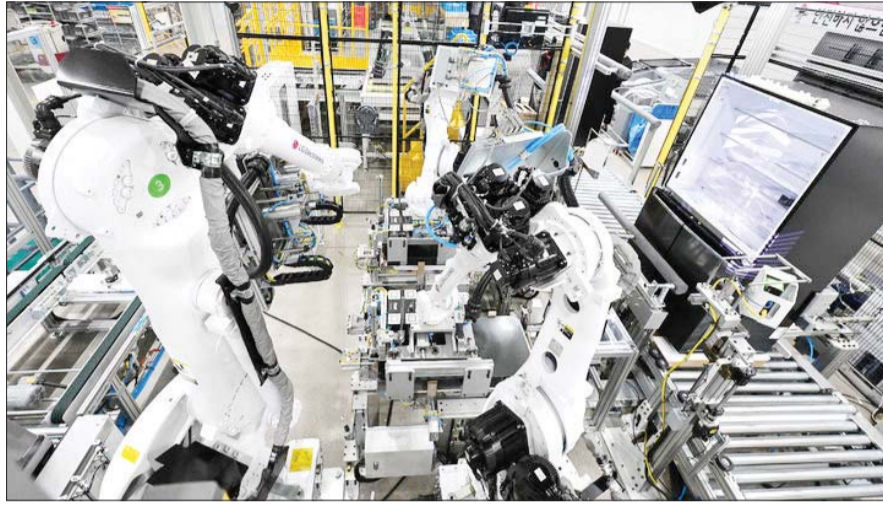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다만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전기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산업현장 AI·IoT 기술 도입 활발... 안전성·효율성 '두토끼'

국내 주요기업 관련 기술개발 박차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앞장
LG전자 '스마트 안전 시스템' 운용
크레인랩 장비 관리 시스템 개발



LG전자 '스마트팩토리' 내부.

LG전자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안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안전 관리 방법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산업 현장에서도 호응이 높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이후 평균 생산성은 28.5% 증가, 산업

재해는 6.2% 감소하는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또 기업당 매출이 7.4% 향상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내 대기업들도 산업 안전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AI와 IoT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 공장 내부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와 위치 등을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LG전자는 AI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통해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제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위치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위험 지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IoT 센서를 통해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기계 고장을 미리 예측해 안전 사고를 방지한다.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들도 산업 안전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스타트업 '딥파인'은 산업 현장의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스마트글라스 '다오(DAO)'를 개발했다.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작업자는 작업물 위에 증강 현실로 노출된 매뉴얼을 통해 작업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딥파인은 DAO 솔루션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와 드론을 활용해 경기도 전체 시·군의 위험 시

설물 점검하며, 시설물 관련 민원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도 구축해놓은 상태다.

스카이랩스는 IoT 기반 센서를 활용해 공장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 물질, 공기 오염, 소음 등을 모니터링해 작업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 잠재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스타트업 크레인랩은 IoT 기술을 활용한 장비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장비나 기계류에 부착된 IoT 센서를 통해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사업분야 확장... 업황 반등 모멘텀 준비

R&D 투자 지속... ESS 등 기술력 강화
전기차시장, 상용모델 중심 수요 증가

배터리 업계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선 결과 반등 조짐을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상용차 시장에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배터리 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EV3와 같은 상품성 높은 차량이 출시되면서 판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EV3는 3000만원 중반대 가격, 1회 완충 시 500km 주행 등 우월한 상품성을 앞세워 8월 한 달 동안만 4000대 이상 판매됐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상반기 기준 현대차 24만1691대, 기아차 16만6274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들어갈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체적인 공급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12월 중 테슬라에 납품할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전기 승용차보다 배터리를 4배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전기 상용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기 상용차 시장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9.9% 성장이 예상된다. 2022년 35만대 수준의 시장이었으나, 2030년에는 314만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기차의 보급이 계속해

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차전지 업계

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에코프로는 계열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에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확보한 자금 중 600억원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돼 양극재 및 전해액 첨가제 제조에 필요한 설비 확보에 사용된다. 에코프로는 이를 통해 양극재 공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료를 그룹사 내에서 처리해 품질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듈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셀투팩 기술로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 배터리보다 무게는 줄이고 모듈 공간만큼 더 많은 셀을 탑재해 에너지 밀도도 높이는 기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기

로 계약한 바 있다.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SK온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지만, 연구개발에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0월2일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나섰으며, 이석희 SK온 대표가 직접 나서 '전동화는 예정된 미래고,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LFP(리튬이온) 배터리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출력을 40% 이상 향상한 UPS(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를 양산한다. 삼성SDI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납축 제품보다 적은 설치 공간, 3배 이상 긴 수명을 앞세워 데이터센터 분야를 공략할 방침이다.

/박대성 기자 iunm@s



(왼쪽부터) 임성한 BSI코리아 대표 김병욱과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가 경기도 안양시 LS전선 본사에서 열린 ISO 37301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ISO 37301 획득

LS전선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LS전선이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준법경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O 37301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인증은 기업의 법규 준수와 윤리 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LS전선이 글로벌 전선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완성차업계, 중고차시장 공략 속도... 핵심전략 '고품질·가치보장'

책임환불제, 점검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완성차 업계가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 중고차 거래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사자 간 거래(102만8007건)다. 사업자매도(90만1985건), 사업자 앞선(1만4740건)을 제치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제외하면서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0월 '현대인



현대차 인증중고차 상품화 전담인력이 품질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증중고차' 서비스를 냈으며, KG모빌리티도 2024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에는 케이카, 엔카닷컴, 보배드림, 첫차, 헤이딜러, KB차차차

등이 있으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또한 중고차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렌터카업체와 완성차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고 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만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현대인증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과 당근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비교해보면, 가격이나 주행거리 측면에서 당근마켓 상품이 앞선다.

완성차 업체는 '고품질 중고차' 전략을 내세워 책임환불제, 종합 점검 서

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신차보다 비교적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지만,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공략하려는 것이다.

또한 신차 구매 후 3년 내 중고차로 처분하면서 신차 구매 시 중고차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등 인증중고차 물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잔존 가치 인정을 통해 신차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EV 등의 3년 이하 전기차를 판매가의 55%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으며, KG모빌리티 또한 지난 액티언 출시 행사에서 3년 내 차량을 되팔 경우 차량 구입 가격의 60%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성 기자 iunm@s

SK케미칼 톨리 콤팩트 케이스 재활용 소재 비중 확대

SK케미칼이 글로벌 화장품 용기 회사와 손잡고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SK케미칼은 렉스팩 모나코 2024(LUXEPACK Monaco 2024)에서 톨리(TOLY)와 함께 순환재활용 소재 적용 비율을 높인 화장품 용기(사진)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화장품 용기는 SK케미칼의 소재 에코트리아클라로(ECOTRIA CLARO)를 사용한 콤팩트 케이스로 재활용 소재 함유율을 70%까지 높였다.



/차현정 기자

K-조선, 기술력 강화·대규모 수주로 해양플랜트 ‘다변화’

유가 상승에 해양플랜트 사업 재조명
인수합병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HD현대중, 중동 대형수주 확장
삼성중, FLNG 수주로 재도약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 사업에도 집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10일 영국조선해운시황 전문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해상석유 및 가스는 지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공급의 16%를 차지했으나 오는 2030년 1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이 해양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석유, 가스 등 해양 자원 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설치·공급하는 산업이다.

특히 해양플랜트는 한 기당 계약금액이 1조~4조원에 달하며 1기당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경험치 등이 선박보다 많이 유교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분류된다. LNG운반선 신조가가 2억 6200만달러(한화 약 3200억원)인 것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해양플랜트는 조선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지난 2010년 이후 고유가 시대 조선사의 매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2015년 유가가 급락하며 매출 비중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정 지연과 계약 취소 등이 잇따르며 큰 손실을 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에 나서면서 해양플랜트가 재조명받고 있는 모양새다.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기업 다이내믹 홀딩스(Dyna-Ma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섰다. 다이내믹은 싱가포르 현지에 생산거점 2곳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한화오션의 계획대로 다이내믹홀딩스를 인수하면 해양플랜트 사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 하역설비(FPSO) 및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등 해양플랜트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동 발주처로부터 해상플랫폼의 상부 구조물 1기를 1조5337억원에 수주했다. 회사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난 2016년부터 해양과 플랜트 부문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캐나다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확보 사업 '시더(Cedar)'에 입찰해 FLNG 1기를 수주했다. 직전 수주는 지난 2022년 12월 아시아지역 선주와 체결한 계약이었다.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계약을 시작으로 연 1,2기의 FLNG 수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설계(FEED) 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입찰 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사업이 조선업계에 중요한 분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플랜트 중심의 발주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TSMC

3분기 매출 전년비 39%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3분기 잠정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는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 토대 마련에 서두를 전망이다.

10일 TSMC가 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518억 대만달러(10조 5529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9월 매출과 앞선 7,8월을 합산한 3분기 잠정 매출을 7597억 대만달러(31조 7400억원)다. 시장 전망 평균치였던 7480억 대만달러(4200억원)를 압도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고 직전분기 매출인 6735억 대만달러와 비교해도 12% 늘었다.

TSMC는 17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포함한 전체 세부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항공기 공급난 속... 동계시즌 대비 '기재확보' 총력

항공업계, 보잉 파업 등 기재 확보 난항
기재 도입 병목현상에 대어·구매 병행
"추가 항공기 도입 계획 차질 없어"

항공업계가 여객 수요 회복에 발맞춰 기재 도입에 집중하고 있지만 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국적사가 신규 등록한 항공기는 저비용항공사 10대, 대형항공사 7대다. 국제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 확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항공기 추가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시기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를 감축했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 후, 국적사·외항사 모두 항공기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병목현상이 일고 있다.



보잉사 공장 제조 라인에서 737 맥스기의 제작이 한창인 모습이다. /뉴시스

항공기 제작사, 부품 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인력 감축이 나섰고, 현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생산 자체도 더딘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서 노동조합 파업이 일어나 항공기 생산이 파비됐다. 이에 국내 항공사의 기재 도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이 보잉사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항공은 737맥스 30대를 인도받기로 계약했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항공은 A321-200NEO 2대, B787-10 2대, B787-9 1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A321-200 NEO 1대를 지난 5월 도입했다.

LCC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B737-800 항공기를 4대를 새로 도입해 가장 많았다. 에어부산 A321-200 NEO 1대, 티웨이항공 B737-800 2대, 에어로케이 320-200 1대 등을 도입했다. 하

지만 국제선 중심으로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항공기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동계 시즌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노선 확대에 나섰다.

제주항공도 하반기 중 추가 기단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대여료의 환율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구매해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보잉사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에 진출한 만큼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항공기를 5대 대여했다. 추가로 장거리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A330-900 NEO 항공기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성 기자 iunm@s

LG CNS

구글 '생성형 AI 전문기업'
아시아 최초 인증 받아

LG CNS가 아시아 최초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기업(Generative AI Service Specializ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글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전문기업 인증은 각 기술 분야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 사례, 임직원의 기술 역량 등을 검증해 부여하는 자격이다. 구글 클라우드의 전문기업 인증에는 20여개 분야가 있으며, 지난 7월 생성형 AI 영역이 새로 추가됐다. LG CNS는 생성형 AI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받은 다섯 번째 인증이다.

/김서현 기자

SKT

고령 고객 안전통신 지원
"사이버범죄보험 1년 무료"

SK텔레콤이 시니어 고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전국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자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공식인증대리점이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시니어 고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디지털전환 돕는다

CJ올리브네트웍스, GDC 사업 수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아모레퍼시픽의 차세대 글로벌개발센터(GDC 2.0)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GDC(Global Development Center)는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12개 국가 대상 고객관계관리(CRM) 운영, 미들웨어 구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수행 등 IT서비스는 물론 국가별 현지화 및 운영 안정화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아모레

퍼시픽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베트남 개발센터를 활용해 GDC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GDC 1.0에 이어 2025년부터 고도화하는 차세대 GDC 프로젝트 수행사로 CJ올리브네트웍스를 선정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안정적인 IT서비스와 국내 개발인력 대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운영비용 등 성과를 높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GDC 2.0은 기존 GDC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최적화로 IT투자 비용 절감을 극대화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영국서 EV 타이어 기술력 선보여

한국타이어, 'EES 사우스' 참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영국에서 개최되는 전기차 전사회에 참가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이달 11~13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시회 '에브리싱 일렉트릭쇼 사우스(EES South)'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EES 사우스는 영국 전기차 전문 매체 '폴리차지드'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에서 진행된다. 한국타

이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최초로 '폴 라인업'을 갖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시장 내 부스에서는 체험존, 이벤트존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 판매 중인 '아이온'의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퍼포먼스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올웨더 타이어 '아이온 플렉스클라이밋' ▲여름용 타이어 '아이온 GT' ▲SUV 전용 롱마일리지 타이어 '아이온 ST A S' 등이 전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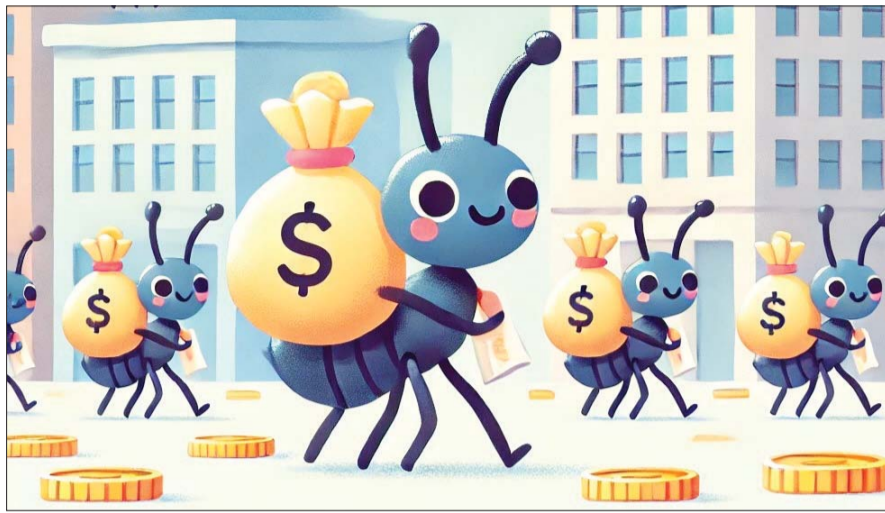
‘퇴직연금 환승’ 간편화 도래… 증권사, ‘머니무브’ 유치 촉각

2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약 94兆… 전년비 18.82% 성장

증권사, 수익률·다양성 등 장점 시장 선점 위해 서비스 역량강화 대행사 위주로 풀릴 현상 보여

오는 1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머니무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는 약 400조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을 은행권이 선점하고 있지만, 신 제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증권사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 내에서도 대행사 위주로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94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79조1534억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약 18.82% 성장한 수치다. 동일 기간 금융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4.02%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증권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퇴직연금 가입사 이전하는 투자자’ 이미지.

사의 성장 규모가 더욱 주목된다. 전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2분기 345조814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94조3034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업종은 6.62%, 은행업종은 15.50% 상승했다.

오는 15일부터는 퇴직연금 현물이전(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환승’이 간편해졌다. 제도가 도입되

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 증권에서 은행 등 퇴직연금 이사가 손쉬워진 것이다.

2분기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은행(약 207조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다만 평균 수익률

은 은행(4.87%)보다 증권사(7.11%)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은 ‘머니무브’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약 400조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에 증권사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사들은 활발한 고객 유치를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다양성, 수익률, 상장지수펀드(ETF) 이용자들에게는 편의성까지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는 투자자들이 은행·보험업종에 비해 경쟁력 있는 증권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적립금 25조원을 넘긴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일 서비스를 개발했다. 더불어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푸른씨앗’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전 상담을 완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3·4위에 해당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RA 투자 서비스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등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한 투증권은 지난 8월부터 퇴직연금 현물 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 시장 역시 대행사 위주로 풀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대차증권을 제외하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이 넘어가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올해 2분기 기준 현대차증권의 퇴직연금 운용 금액은 16조7324억원으로 운용 금액 규모 2위에 해당한다. 다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합친 계열사 비중이 약 86.68%에 달해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연이은 코스피 이전… “일시 변화보다 기초체력 집중해야”

에코프로비엠·HLB 등 이전상장 추진 최근 주가상승으로 이어진 사례 없어 실적 부진 원인… 근본 가치 안 바뀌어

코스피 상장 이전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 안정, 투자자 유입, 주주 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없이 이전상장이란 일시적 재료를 앞세우는 기업들의 행태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HLB,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 결의했다.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유토이미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5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고, 지난 8월 29일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HLB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지난 5월 간담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미국 식품의약

국) 승인이 불발되면서 이전 시점도 연기됐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FDA 승인 일정에 따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선 이전 상장을 호재로 여긴다.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전 상장일 하루 만에 8.97% 급락했으며 포스코DX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 첫날 각각 6%, 4% 넘게 하락했다. 이전 상장 첫날에 비해선 포스코DX와 엘앤에프는 각각 56.68%, 19.85% 내렸으며 파라다이스는 23.81% 떨어졌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엘앤에프가 3분기 4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실적 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

는 등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파라다이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43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보다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더 큰 상황인 점을 반영해, 3분기 및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을 해도 근본적인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전 상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필요”

한국투자디딤CPI+펀드로 실현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역인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10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투자디딤CPI+펀드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출시된 ‘한국투자디딤CPI+펀드(채권혼합-재간접형)’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강성수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원리금보장 상품 비

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를 추구’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해당 펀드와 동일한 모펀드로 운용 중인 ‘한국투자MySuper알아서 펀드 시리즈’의 운용역이기도 하다. 해당 펀드 시리즈가 현재 디폴트 옵션 편입 밸런스펀드(BF) 유형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 1위’(8일 에프앤가이드 기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는 게 한투운용의 설명이다.

강 상무는 “은퇴자금 적립기와 인출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자산배분형 펀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범준 연금마케팅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를 꼽았다.

이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한투운용의 자체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에 기반해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위험조정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성장주와 국내 채권을 조합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ETF를 활용한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인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가 적용됐다는 점 외에도 이미 성과 입증된 한국운용의 우수한 자산배분 펀드 운용 능력이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토스증권, 김규빈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전임 김승연 대표 사임

토스증권이 신임 대표이사에 김규빈 제품총괄(Head of Product·사진)을 선임했다고 10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해 제품총괄로 발탁된 이후 1년 만에 대표로 선임됐다. 토스증권 측은 “이번 인사는 토스증권의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강화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김승연 대표는 지난해 4월 토스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개인적 사유’로 6개월 임기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토스증권은 출범 4년 차에 네 번째 대표를



선임하게 됐다.

김 신임 대표는 1989년생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전 자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다. 지난 2012년 모바일 선물 서비스 ‘나노조’를 창업한 후 이베이코리아,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거친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월 토스증권에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 PO)로 입사한 이후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출시, 투자자들의 토론의 장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끌었다. 지난 2023년 최초로 분기 흑자 달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허정윤기자

게임위 “게임물 내용수정 시 사업자 제출자료 간소화”

서태건 위원장 첫 규제 완화책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 제작 체크만 하면 등급분류 재평가 6개월 시범운영으로 악용 방지

앞으로 게임 내용이 경미하게 수정된 경우, 게임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분류를 재평가받는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신입 위원장 선출 후 시행되는 첫 규제 완화책이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게임 사업자의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내용 변경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뉴스시스

이 발생했을 시, 게임 사업자는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게임물 내용이 수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건을 검토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평가 여부를 통보한다.

문제는 신고자가 게임 내용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오준택 책임은 “원래는 게임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자가 전부 다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게임위 측에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조차 일일이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에서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 간소화는 신고 제출 자료 양식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자체 제작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변경 신고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체크만 하면 등급 분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시행인 만큼, 우선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사업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넓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분류 심사 등급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들어오는 내용 변경 신고 건수는 많을지언정, 개별 업체 입장에서 게임물을 일년에 3, 4개씩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 신고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 수정 시 등급 평가 간소화보다 애초에 등급을 처음 받을 때부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며 “실제 중소 게임 개발자는 처음 등급 분류 받을 때부터 행정적 서류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KDI “건설투자 부진... 경기 개선세 제약”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 진단 ‘고금리 기조, 소매판매도 감소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KDI의 이 같은 평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나왔다.

KDI는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돼 경기 개선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빈 점포에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스시스

1년9개월간 연 3.5%에 묶여 있다. 또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며 “선행 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고려하면 당분간 건설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품 소비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경기 판단(73→71)과 향후 경기 전망(81→79) 등 경기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전월(100.8)보다 소폭 내린 100.0을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ICT 품목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라며 이미 10월 경제동향과 흡사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유지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4분기 물가동향 변수로 에너지 부문을 지목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정책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불확실성은 지속했다”며 중동 리스크를 재차 거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셀트리온 ‘항암제’ 글로벌 지배력 높인다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 이어 ‘항암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트룩시마(성분명: 리툽시맙)·허주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등 3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 셀트리온은 해외 진출 국가에서 이들 제품의 입찰 수주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장해 해당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트룩시마와 허주마는 유럽에서 각각 25%, 21%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허주마는 일본에서는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시장내 입지를 굳혔다.

3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1분기 기준 트룩시마·허주마 유럽 점유율 각각 25%·21%

코스타리카서 셀트리온 항암제 점유율 90% 넘어 ‘독보적’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인 호주에서도 셀트리온 항암제의 처방 확대는 커졌다. 허주마는 올해 1분기 기준 호주에서 47%의 점유율로 오리지널을 포함한 트라스투주맙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 2021년 4분기 호주 트라스투주맙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라선 이후 2년 넘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트룩시마도 호주에서 18%의 점유율로 해당 성분 치료제 시장에서 처방 상위권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국가들뿐 아니라 교두보로서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기업 입지를 다져 왔다. 대표적으로 중미 주요 국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에서 셀트리온 항암 제품들은 90%가 넘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



베그젤마. /셀트리온

툽시맙)의 경우 지난 2019년 코스타리카에서 출시와 동시에 국가 입찰에서 낙찰됐고, 대해 수주를 거듭해 6년 연속으로 공급되는 중이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주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2021년부터 국가 입찰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왔다.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에서 트룩시마와 허주마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출시됐고 두 제품 모두 현재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80%의 점유율로 처방 1위에 올랐다. 또 셀트리온은 과테말라에서는 트룩시마 점유율을 70%까지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중미 국가에서 전이성 결핵잠양, 비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도 내 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중미 지역은 대부분 국가 입찰 방식으로 의약품 공급이 이뤄져 수주 성공 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한번에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입찰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입찰 대신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출시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베그젤마는 올해 하반기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기존 허주마에 이어 후속 제품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브라질에서 허주마 낙찰에 성공했고, 오는 2025년까지 브라질 연방 정부에 허주마 약 66만 바이알을 단독 공급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제조승인 300건

FDA 39건, EMA 34건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창립 13년 만에 제품 허가 기준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 건수 300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39건, 유럽의약품청(EMA) 34건 등 총 326건의 제조 품목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규제기관 심사 통과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규제기관 제조 승인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전 과정에 대해 우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및 품질 적합성이 검증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생산(CMO)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까다로운 규제기관의 실사에도 성공적인 트랙레코드를 쌓은 배경으로 전문 인력 양성, 전자데이터 관리 시스템, 비대면 실사 역량 구축 등을 꼽았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직후부터 실사전문팀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실사전문팀은 규제기관 및 고객사 실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실사에 필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실사 대응 인력을 교육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약 70명이었던 글로벌 주 금액(3조 5009억원)의 74%를 달성한 상태다.

존 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글로벌 제약사 제품 수주와 신속한 규제기관 인증 획득을 통해 지난 13년 간 CDMO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품질경영을 기반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WWF “50년간 야생동물 73% 급감”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위기해결 촉구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
지속 가능한 농업·보호정책이 해법
에너지·식량 시스템 등 혁신 필요
식량 손실·낭비 줄이는 정책 절실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50년 만에 야생동물 개체군의 73%가 급감했다고 경고했다.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내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탄소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포인트에 가까워졌고,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야생동물 개체군의 감소는 멸종 위



박민혜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협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토양 등 인류가 의존하는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이는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란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마름 현상(Dieback)이나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로벌 티핑포인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식량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보전,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현재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 확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빈곤 퇴치를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 생명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약과 실질적인 행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한 티핑 포인트를 피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커스틴 슈이트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소중한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韓 첫 저탄소 인증 돼지·젓소 농장 탄생

농식품부, 돼지·젓소농장 68곳 인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돼지농장 44곳과 젓소농장 24곳이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68개 농장은 ▲모든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감축기술을 활용해 일반농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한 경우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젓소농장 인증 사례에는 ▲1마리당 우수 생산량 향상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일반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및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곳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곳, 돼지 44곳, 젓소 24곳까지 총 162곳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 돼지, 젓소 누계 221곳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건기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책 공조 필수”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참석

정부가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과 초청국인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이집트 등이 참석,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

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공급망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노 실장은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며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질병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가을과 겨울에 발생 위험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충남 아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환자가 발생해 가을철에 특히 집중된다. 이 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탓에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치명률이 약 20%에 이른다. SFTS에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가축)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을 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포유류 등에 주로 접촉해 감염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민관 협력해 내수 확산 총력”

한덕수 총리 주재 국정현안장관회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 논의
“올해 코세페 역대 최대규모 진행”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민관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세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문체부,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올해 코세페는 11월 8일 명동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3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업종이 참여하고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기업 할인품목과 할인율 등의 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된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우체국 소기업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소중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두페(면세점 연계, 11월9일~30일)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 적용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필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결정 확정

재해자가 마지막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애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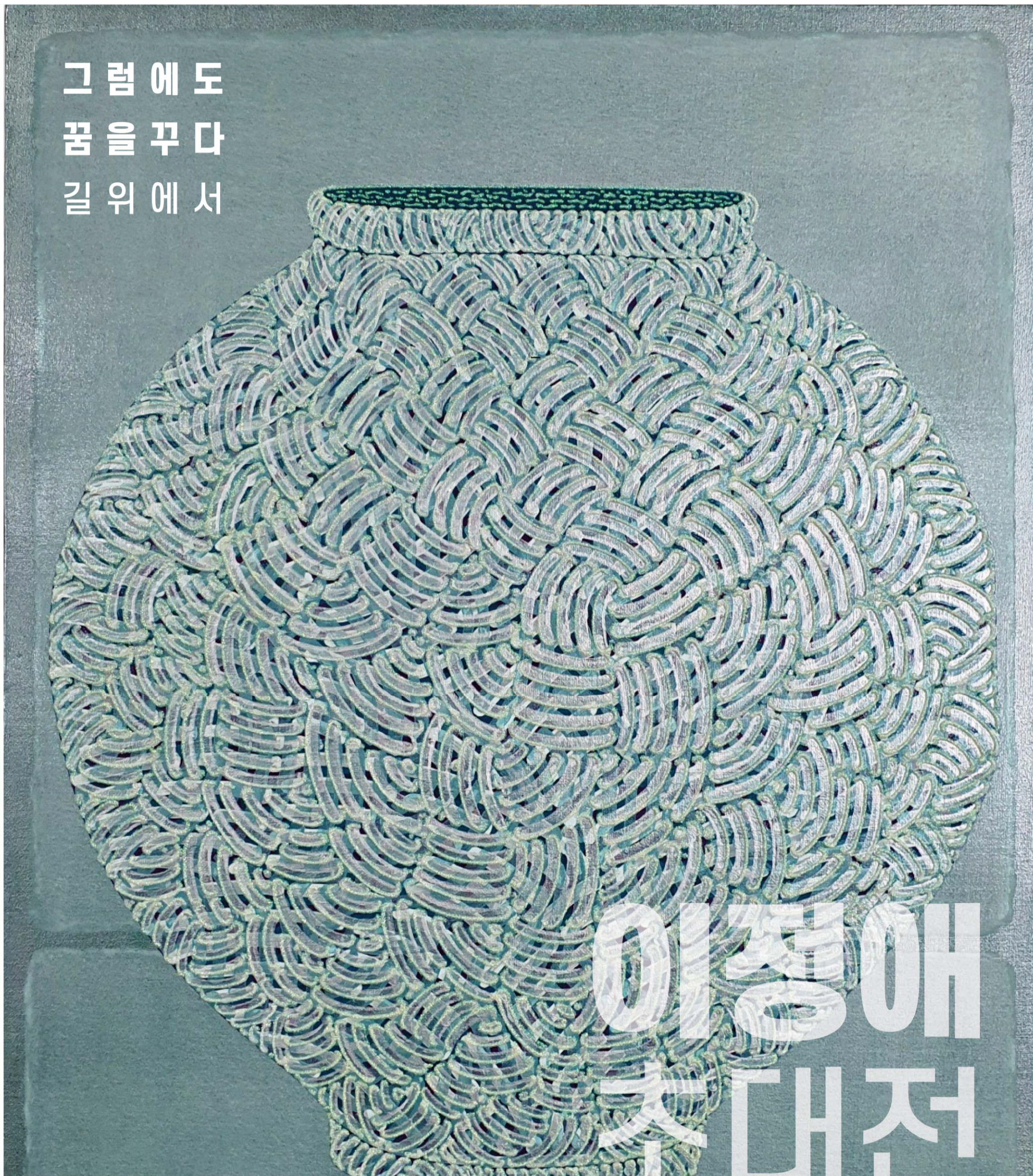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에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정심위는 재해자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Gallery **오름**

그림에도
꿈을 꾸다
길 위에서



이정애 추대전

그림에도 꿈을 꾸다-길위에서 20P(72.7cm x 50.0cm) | Acrylic on canvas with mixed media

2024. 10.11(금) ▶ 10.22(화)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11:00-19:00 *매주 일요일/월요일 정기휴관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비** ARAMBI 동성제약 신안개발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DAY

조전혁 “초등 진단평가 도입” vs 정근식 “수행평가 확대해야”

조전혁, 학력 신장·사교육비 경감 학교평가청으로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디지털화 막을 수 없어... 충격 최소화 정근식, '학생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로 격차 해소 디지털교과서 '줄속정책'... 역효과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화 후보들이 '학생 학력 평가' 방식을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른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확대를,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수행평가' 확대를 강조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조 후보는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한 반면, 정 후보는 '줄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이견을 보였다.

◆ 조 “진단평가 전면시행 부활”... 정 “수행평가 확대”

이날 조전혁 후보는 지난 10년 학생 학력 수준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학부모 대표팀 지지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

대해 '학생 평가 축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중점 공약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해 '초등 진단평가' 도입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정규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활성화된 '암시장'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성취도평가가) 표본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전수평가로 바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적) 장단점을 파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 당국도) 이를 통해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필평가는 이른바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진단평가 성격이다. 반면, 수행평가는 선다형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해 간략하게 자주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필평가와 다르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수행평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필평가는 결국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생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지필평가는 없애고 수행평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는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평가 자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진단평가는 지양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조 “학교·교사 평가해 질 관리”... 정 “학생별로 학습 부진 원인 진단”

양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한 가운데, 조 후보는 기관 평가를 통한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정 후보는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놨다.

조 후보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평가청이 자칫 ‘교사 평가 기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왜 교사를 평가하면 안 되냐”라고 되물으며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지표가 생기면 전반적인 교육

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습 부진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라며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디지털교과서, 조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정 “줄속정책”

조전혁 후보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는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며 “중요한 것은 기술의 전환기에 있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우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중독을 막기 위해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 후보는 디지털교과서 전면 시행을 두고 ‘줄속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정 후보는 “인공지능시대에 도래했다고 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꾸리고 억측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현진기자 hj@metroseoul.co.kr

대중교통 이용자 12% ‘기후동행카드’ 쓴다

9월 기준, 지난 2월비 6.3%p 늘어 단기권 이용자, 두 달 새 2배 이상 ↑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9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중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비율은 지난 2월 전체의 5.5%(약 23만

명)에서, 올 9월 11.8%(약 51만명)로 6.3%포인트 증가했다.

평일 중 최대 이용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9월 26일로, 이날 하루 약 62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다. 가을철 날씨가 성수기를 맞아 ‘단기권’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루 평균 4000명이 사용했던 올 7월 대비 지난 9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두 달 새 단기권 이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는 일본어(30%)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28%), 영어(22%), 중국어

(20%)가 그다음이었다. 권종별로는 3일권(34%), 5일권(23%), 7일권(17%), 2일권(14%), 1일권(12%) 순으로 많이 충전·이용됐다. 단기권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지하철역은 명동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안국역이었다.

시는 본 사업에 들어간 지난 7월부터 ▲서울대공원·식물원, 서울달 포함 문화·여가시설 연계 할인 ▲진접·별내선 등 이용 범위 확대 ▲인천공항역 하차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가 혜택이 추가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접종

경기도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75세 이상부터 11월 이후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75세 이상과 같은 1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을 활용한다. 이번 절기 접종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포항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1114억 조성

전국 최초 1대 1 매칭사업 추진

포항시는 민관협력 매칭사업으로 올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을 1114억원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포항시가 전국 최초이며, 조성 금액 또한 전국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 2월 지자체 최초로 iM뱅크(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출



지난 8월 포항시는 새마을금고와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원 조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연해 14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이후 7월 iM뱅크(대구은행)의 30억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원을,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으며 200억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조성된 특례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500억 규모의 특례보증 재원 신청을 받는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영암F1경주장서 ‘국제 드론 레이싱’ 펼쳐져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13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KOREA DFL) 2024’를 개최한다.

올해 3월, 전라남도도와 영암군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드론 레저 국제 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국내 최초로 F1

경주장에서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는 1000mm급 초대형 고성능 드론이 경쟁하는 경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가 승리한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특수 고글인 F PV(First Person View)를 쓰고, 총 6500만원의 상금을 놓고 프로·세미프로·자유형·e-드론레이싱종목으로 총 4을 다룬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흑백요리사 속 밤 티라미수·보쌈수육, 편의점서 맛보세요”

편의점, 셰프 협업상품 속속

CU 권성준 ‘밤 티라미수 컵’ 판매 GS25 넷플릭스와 ‘편수저 시리즈’ 세븐일레븐 간편식 출시방안 검토

최근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출연자들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현재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김미령 셰프, 권성준 셰프 등 국내 내로라한 셰프들이 출연한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편의점은 CU다. CU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 컵’ 제품을 상용화해 선보인다. 10일까지는 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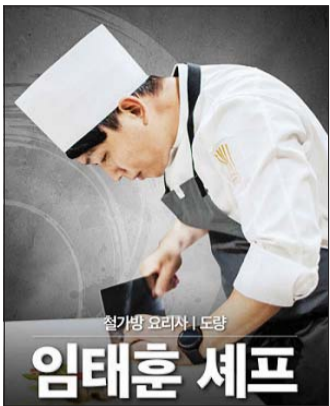
조광호 셰프 GS25가 협업한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4인.



김미령 셰프



장호준 셰프



임태훈 셰프

모바일 앱인 포켓CU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2일 이후부터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 메뉴는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음식을 만드는 미션 과정 중 탄생했다. 권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은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미션 1위를 차지했다.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10월 1~6일 마롱 생크림 빵과 맛밤의 매출도 전주 대비 각각 31.1%, 42.7% 상승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고객이 직접 전국 CU 편의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 및 콘텐츠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함께 협업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협업 셰프는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만찢남’ 조광호, ‘철가방요리사’ 임

태훈,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다.

김미령 셰프와는 ‘보쌈 수육’, ‘말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3개 제품을 출시하고 조광호 셰프와는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샥’, ‘유산슬밥’을 선보인다. 일식 다이닝 네기커피를 운영하는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 ‘소고기 대파 우동’과 같은 간편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GS25 관계자는 “17~19일 우리동네 GS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먼저 조광호 셰프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다른 제품도 이달 말부터 GS25 매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세븐일레븐도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간편식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흑백요리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매출 1위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GS25 매출은 4조1620억 원, CU는 4조1243억 원으로 격차가 377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두바이초콜렛을 선보인 CU가 출시 두달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양사의 경쟁은 당분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CU와 GS25는 흑백요리사 관련 상품을 통해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누적판매 4억병... 새로, ‘제로슈거 소주’ 대표 자리매김

롯데칠성음료

‘새로구미’ 엠베서더 캐릭터 차별화 ‘새로살구’ 콘텐츠 조회수 1000만뷰

롯데칠성음료가 2022년 9월 중순 첫선을 보인 ‘새로’가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판매량 4억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브랜드 히스토리를 앞세운 마케팅이 SNS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로’는 기존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 Sugar)’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으며, 출시 7개월여



새로 신규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새로’의 상승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져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가 브랜드의 반열에 올랐으며, 지난 4월 중순부터는 진짜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이 확대돼 매출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출시 2주년을 앞둔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판매량 4억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새로’는 한국의 전래동화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느낌의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출시 때부터 브랜드 엠베서더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에 배치해 기존 소주 제품들과의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출시 초 선보인 ‘소주 새로 탄생 스토리’를 담은 5분 정도 분량의 콘텐츠는 사람의 간을 탐했던 구미호가 ‘새로’와 함께 ‘새로구미’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기획세트 판매

동국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마데카 마이크로 스타톡 세럼’ 기획세트를 뷰티컬리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획세트는 ‘마데카 마이크로 스타톡 세럼’과 ‘마데카 인텐시브 아이크림’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데카 마이크로 스타톡 세럼’은 고농축 보습 제품으로 연약해지기 쉬운 눈가, 입가, 팔자 부위 주름을 관리해 준다는 것이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동국제약의 핵심 성분 테카와 병풀추출물, 동국제약이 개발한 탄력 도움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이번 기획세트의 뷰티컬리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GC녹십자 ‘콜즈룩 나잘 스프레이’

GC녹십자는 일반의약품 ‘콜즈룩 나잘 스프레이’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알레르기 치료제로 코막힘, 콧물, 재치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를 갖췄다.

특히 ‘콜즈룩 나잘 스프레이’는 옥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로 코막힘과 비염 증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옥시메타졸린염산염은 비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 점막 충혈을 제거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해 콧물 및 재치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

hy, 간 건강 발효유 ‘쿠퍼스’ 10억개 판매

일평균 10만개 판매... 연매출 1000억

hy의 간 건강 발효유 ‘쿠퍼스’ 누적 판매량이 10억개를 돌파했다.

2004년 출시된 쿠퍼스는 활력발효유를 모티브로 3년간 5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2009년에는 간 건강 발효유 ‘햇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로 리뉴얼하며 ‘간 건강 기능성 발효유’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리를 개척했다.

2013년에는 ‘쿠퍼스프리미엄’을 선보였다. 쿠퍼스프리미엄은 당시 hy의 프로바이오틱스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국내 최초로 이중

캡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햇개나무추출분말을 액상에 넣고, 밀크씨늘을 정제 형태로 뚜껑에 담았다.

hy는 쿠퍼스의 슬로건을 ‘간 건강 쿠퍼스’로 변경하고 총 4번의 리뉴얼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여왔다. 2017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곡을 함유한 혈행케어 제품을 추가 출시하며 라인업을 넓혔다.

간 건강이라는 명확한 콘셉트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높은 판매량으로 이어졌다. 일평균 판매량은 10만 개까지 상승했으며 연 매출은 1000억원에 이른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꿀소스 닭강정 2종 출시

16일까지 2000원 할인 ‘7990원’

롯데마트가 새로운 꿀소스 닭강정을 선보인다.

롯데마트 델리 코너의 시그니처 상품인 ‘갱옛 닭강정’은 2017년 출시 이후 매년 500만팩 이상 판매되며 수년간 닭강정 카테고리 내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갱옛 닭강정의 인기 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10일 프렌차이즈 전문점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닭강정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꿀사과 닭강정’과 ‘꿀간장 닭강정’의 가장 큰 특징은 옛기름을 고와 만든 ‘갱옛 닭강정’과는 달리 본연의 향과 단맛을 가진 꿀을 베이스로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의 푸드이노베이션센터의 전문 셰프와 델리 MD가 함께 6개월 간 새로운 닭강정 상품 개발에 매진했다. 롯데마트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꿀사과 닭강정’과 ‘꿀간장 닭강정’을 정상이 9990원에서 2천원 할인한 7990원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



홍경안의
시시일각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종전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란을 향하며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언론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과 가자지구 보건부 등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포함 팔레스타인은 4만1802명이라고 보도했다. 사망자의 약 70%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967년의 제3차 중동 전쟁 때보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들은 아랍권이 이스라엘과의 수십 년 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인

명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가자전쟁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꼽는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민족, 종족,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4월, 베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 2024.04.20.~11.24.) 이스라엘 국가관의 작가 루스 파티르(Ruth Patir)와 큐레이터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휴전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석방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본전시 예술감독 아드리아노 페드로사(Adriano Pedrosa)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지지했다.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전부터 수천 명의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관을 비엔날레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관들이 들어선 자르디니(Giardini di Castello) 구역에는 대량학살 반대 예술 연맹(A

NGA)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No To The Genocide Pavilion)는 팸플릿을 뿌렸다. 본전시에도 동일한 맥락의 작품들이 곳곳에 들어섰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무의미한 살상’에 연대를 표했다. 여기엔 국가와 인종의 구분은 없다. 전쟁 뒤에 감춰진 파괴적 본능과 정치적 계산, 그로 인해 드러나는 허무와 비극만 존재한다. 윤리적 지향성이 결여된 거대한 폭력에 대한 규탄, 인간 ‘존재’의 근본적 불안과 ‘실존’의 허무를 반영한 ‘저항’이 있을 뿐이다.

광주비엔날레(2024.9.7.~12.1.)는 5.18민주화운동의 저항 정신을 뿌리로 한다. 저항 정신은 곧 ‘광주 정신’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국가 폭력 앞에 당당히 항거하며 이겨냈던 공동체 정신과 기억과 애도, 연대와 투쟁의 미학적·실천적 정신이 광주 정신이라는 것이다. 실제 광주비엔날레는 늘 역사적 시민 투쟁은 물론 여러 동시대 시민 투쟁을 조명하

는 광주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인 30여개의 국가관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문화기관인 CDA홀론(국가관)을 앞세운 이스라엘도 포함됐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전시에는 인간의 정의를 묻거나 사회적·정치적으로 은폐된 것들을 되짚는 작업들이 출품됐다. 개중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적 역사를 말한다. 넓게 보면 존재와 실존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타인의 폭력과 고통에 대해선 침묵한 채 애들러 표현한 존재와 실존은 공허하다. 광주정신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류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국가를 초대한 광주비엔날레는 위선적이며 모순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진정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연대를 가치로 내걸었다면 세계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고 했어야 했다.

/홍경안(미술평론가)



풀무원, 협력사 임직원 아카데미 체험

풀무원 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풀무원 우수협력기업 임직원들이 풀무원농장의 설립자 원경선 원장 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OCI,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진행

OCI가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년도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유신 OCI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I

코티나 부터 아이오닉5 까지 현대차 57년 역사가 ‘한눈에’

자동차 누적생산 1억대 달성 기념
한달간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서울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전시장 1층에 마련된 현대차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첫 생산차 코티나와 첫 고유모델 포니. /현대차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중간에는 각 시대별로 현대차와 함께한 고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해 현대차와 고객들이 함께 만들어낸 1억대 달성의 의미를 더했다.

지성원 현대차브랜드마케팅본부 전문은 “이번 전시는 생산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차 한 대에 집약된 숨겨진 노력과 시간을 돌아보고, 자동차 제조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나아가는 현대차의 시간을 고객들과 함께하고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최초 조립 생산 모델 ‘코티나 마크2’부터 최신 전동화 라인업까지 57년 역사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을 기념해 ‘다시, 첫걸음: 원 스텝 퍼더(One step further)’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현대차의 누적 1억대 생산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고객들에게 ‘현대차의 진심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장 1층은 현대차 최초 조립 생산 모델인 ‘코티나 마크2’와 포니 수출 20주년을 맞이해 역사적인 첫 고유모델이자 최초의 수출차인 ‘포니 에콰도르 택시’ 실물이 함께 전시돼 현장감을 더해준다. 2층에서는 현대차가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 팩토리 및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하기까지 생산 제조

리복, 프로농구단 삼성썬더스 공식 후원

2024~2025년 시즌 스폰서십



리복 삼성 썬더스 공식 유니폼 착용한 구단 선수들 단체사진. /리복

생활문화기업 LF의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서울 삼성썬더스 농구단과 함께 한국프로농구(KBL) 2024~2025년 시즌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F에 따르면 리복은 이번 계약을 통해 2년간 삼성 썬더스 선수와 코치진들에게 유니폼을 포함한 신발, 연습용품, 일상용품 등을 공식 후원한다.

리복의 삼성 썬더스 공식 유니폼은 지난 5일 진행된 2024년 KBL 컵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단 공식 유니폼은 리복의 시그니처 로고인 벡터 로고를 강조해 제작됐다는 게 리복 측의 설명이다.

리복의 한국프로농구 공식 후원 계

약은 16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리복은 2007년과 2008년 시즌 안양 KT&G 유니폼과 일부 선수들의 농구화 후원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스폰서십 계약은 2023년, 2024년 시즌 KBL의 상품과 사업권 협약을 진행한 케이엔코리아와의 3자 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자산운용, 홀트아동복지회 지원

지난 8일 KB자산운용은 저소득 가정 출산용품 지원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왼쪽)가 심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자산운용



BNK금융·카자흐 신라인그룹 ‘맞손’

BNK금융그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신라인그룹 본사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이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카자흐스탄 신라인그룹 회장(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메가박스, 뮤지컬 등 클래식 콘텐츠 확대

16일 ‘엘리자벳’ 단독 개봉

메가박스가 오페라, 발레, 미술, 강연 등에 이어 뮤지컬까지 ‘클래식 소사이어티’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2016년부터 ‘클래식 소사이어티’ 큐레이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클래식 콘텐츠를 관객과 함께 하고 있다.

2009년 국내 극장 최초로 오페라 공연 실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필하모닉 및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매년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 실황 상영을 비롯해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작품과 예술사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강연 프로그램 ‘시네 도슨트’를 2019년부터 진행하며 국내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메가박스는 ‘가장 가까운 공연장’을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클래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 뮤지컬 공연 콘텐츠까지 확대해 온 영한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콘텐츠 차별화 전략이다. 메가박스는 오는 16일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 영화 ‘엘리자벳: 더 뮤지컬 라이브’를 단독 개봉한다. 실제 치열한 파격전이 펼쳐졌던 옥주현, 이해준 배우의 패셔너블 스크린과 극장 사운드 그리고 편안한 좌석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개봉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객 투표 이벤트, N차 관람 이벤트로 공연 상품권, 영화 초대권, 배우 사인 포스터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10월 11일 (금)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14~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37 | 해질 / 18:00

연천 10/23, 동두천 11/23, 가평 10/23, 파주 10/23, 서울 14/24, 양평 12/23, 인천 15/22, 수원 14/23, 용인 14/23, 평택 12/23, 백령도 15/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대로 둘 것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는 간혹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말을 듣는다. 이는 노동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은 1차 노동시장을 상층시장,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을 하층시장이라 말한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시장이고, 2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1차 시장, 2차 시장이란 말에서 풍기듯, 1차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안정, 연금 등이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치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 규모별 기업 수치이다. 2022년 KOSIS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734만3521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87%이고, 나머지 0.13%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둘째,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치이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

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 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근로 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치이다. 2023년 KOSIS의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 및 비중을 보자.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62만3000원, 195만7000원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63%, 37%이다. 넷째, 기업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살펴보자.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자료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사업체 규모 300인 기준의 시간당 임금은 우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잘 설명해 준다. 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 300인 이상 비정규직 임금이 65.3%이고, 300인 미만 정규직이 57.65%이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이 43.7%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직업유형별 노조조직률 자료를 보자. 2022년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이들의 노조조직률이 13.15%를 나타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상층 노동시장이라 말할 수 있는 대기업 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 근로자가 노조가 없는 조직에서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도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나 기회가 막혀있는 상황을 개인의 능력 차이, 교육격차, 부모의 사회적 지위 차이 등과 같은 개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특히 무위위화(無爲以化)의 염원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원활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 이런 사회가 건강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중소기업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경험을 쌓고 대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가는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미국을 상기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비선’을 허용하는 한국 정치관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물인 명태균 씨의 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명 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자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에서 정치브로커로 통한 명 씨가 내뱉는 말은 과격적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下野)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냐”,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명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하고 당시 윤

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것이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반박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 씨 한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흔한 법적 조치도, 강한 부정도 없었다. 야당은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였다며 이를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의혹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 이탈표가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릴 때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아직은 뭉쳐있지만,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의혹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록 결합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 윤 대통령 내외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순방 중일 때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16 재보선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했다지만 명 씨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경우 나라 전체가 또 다시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서글픈 현실. 48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0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72년생 물을 두려워해서는 훌륭한 수형선수가 될 수 없다. 84년생 종전대로는 살 수 없을까.



37년생 조상제사의 예의를 지켜라. 49년생 겸손이 행운을 가져온다. 61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 73년생 이번 승진에 빠지더라도 공부하는데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85년생 집안 대청소로 건강을 유지.



38년생 아침에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기니 먼 길 삼가. 50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62년생 여행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7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86년생 조연을 새겨들어야.



39년생 상대를 있어 주는 것이니 슬퍼마라. 51년생 우물에서 송는 찾지 말고 순서대로. 6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7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87년생 배우자와 나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



40년생 기성종교에 비해 연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52년생 비가 오면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오늘은 걸어야. 76년생 사랑이 지나치면 만생된다. 88년생 변화를 꾀할 때다.



41년생 지난 인연에 시간 낭비 말고 새 출발. 53년생 동료와 견해차로 업무가 지연될 수. 65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7년생 채근담 가르침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새로워져 분발하게 된다. 89년생 감사한 하루.



4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5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66년생 일이 힘들어도 끝 마무리를 잘하라. 78년생 직업보다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90년생 어چه 일이 전화위복.



43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5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 더 쌓인다. 67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9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나 연인을 만나도 우울 말조심. 91년생 하나의 열매가 돌아온다.



4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6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68년생 직장 불평하며 각박하게 지내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보라. 80년생 광화문 거리를 함께 걸어본다. 92년생 변화의 옷차림 좋은 하루.



45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못지 않는다. 57년생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녀 성과를 낸다. 69년생 이혼 결정을 일시적 감정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81년생 부모님은 산해 진미(山海珍味)보다 자주 찾아보는 것이 효. 93년생 버릴 수 있다면 버려라.



46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5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70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문서를 보완하게 된다. 82년생 실력에 마음작용까지 대입해보면 말 그대로 일체유심조이다. 94년생 바쁜 하루 되겠다.



47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하는 것이 인생. 59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부터 순조롭다. 71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83년생 구성수가 있으니 새로운 이성남자를 신중. 95년생 저축으로 확연한 재산증식을.



김상회의四季 생전에수재와 백중

이렇듯 대승불교가 번창하게 되는 AD 3~4세기 이후로 부터는 초기 경전이라고 여겨지는 5부 니까야와 법구경에서 나오는 여러 불교적 기록들이 대승불교가 퍼지게 되는 나라들의 교유한 문화와 관습이 더해져 새롭게 각색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게 된다. 범비사라왕이 존재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은 지장신앙을 접목하여 생전에수재의 효시라 칭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범비사라왕이 꿈에 나타난 친척과 친지들의 아우성을 듣고 석가모니께 묻은 결과, 부처님은 아귀계에 떨어진 인연 친척영가들을 위해 재를 지내주라 했다는 기록과, 또한 범비사라왕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수승했던 지라 명을 마칠 때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초기경전의 기록도 있으므로 비단 생을 마친 영가들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자신을 위해 생전에수재를 권장하는 대승 불교적 관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라 할지라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처럼 1인 세대가 많은 현재에는 내가 명을 마쳐도 나를 위해 재를 지어줄 일이 희박하다. 살아서 선업을 잘 지어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선업공덕이 확고하기도 쉽지 않다. 육도윤회를 해야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일진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 생전에수재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나이 육십이 넘어서는 미리 수의를 마련해두시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 역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나의 업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 이것도 죽음에 대한 준비이며 바람직한 업의 유전을 위한 태도일 것이다. 반드시 윤달이 들고 윤년이 있을 때만 행할 일은 아니다. 생전에수재의 일상화라고나 해야 할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7	1	9		5
		1				4		
9								
6				8	9	2	3	
	7	9	5	3				4
								9
		5				6		
3	6	9	2	4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1	7	2	6	9	1	8
2	7	9	1	8	9	6	8	
6	1	8	9	9	8	2	7	
7	8	1	9	8	9	6	2	
9	6	9	2	7	1	8	1	
1	8	2	6	8	1	7	9	
1	2	8	8	9	7	9	6	
8	7	8	6	9	1	2	9	
9	9	6	1	1	2	8	8	7

1	2	9	9	7	8	6	8	2
6	7	8	9	1	2	1	8	9
8	2	9	6	2	1	9	7	
2	8	2	8	9	9	1	6	
7	6	8	1	8	9	9	2	
9	9	1	2	1	6	8	7	
9	8	6	2	2	8	7	9	
2	9	1	7	9	1	8	6	
8	1	7	6	8	9	2	1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예매하기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와인 ‘오픈런’에 대한 단상... “사랑은 식지 않았어!”



안 상 미 작가의
Why, wine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 현장.



왼쪽부터 돈 멜초 2021 빈티지, 카스텔로 디 브롤리오 2020 빈티지. /안상미 기자

이미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행사장 돌레를 돌고도 꺾어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근까지 이어졌다. 지난 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에 참석하려는 이들이다.

작년에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지라 30분 전에 일찌감치 도착했는데 이런 ‘오픈런(시작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다.

◆ 와인시음회에 ‘오픈런’

오픈런의 대상은 다름아닌 와인 시음회다. 와인 인기가 시들하다더니 돈을 내는 유료 시음회, 그것도 1인당 14만원이나 하는 입장료에도 사람이 몰렸다.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는 와인업계에서는 스타급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주최하는 시음 행사다. 원래 매년 열리도록 기획됐지만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작년년부터 다시 열렸다. 전 세계의 뛰어난 와인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는 150개 와이너리가 260여종의 와인을 들고 왔다.

제임스 서클링은 시음회 도중 단상에 올라 “지난 몇 년간 한국 와인시장의 성장세는 경이로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서클링은 아시아 투어의 첫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만큼 향후 전망도 밝게 본다는 얘기다. 한 모금에 감탄을 자아내는 와인도 많

았지만 일단 이번 시음회의 가장 큰 성과는 다름아닌 한국인들의 와인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 와인 전성기를 위한 힌트

식지 않은 사랑은 확인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사이가 뜨뜻미지근했던 이유는. 원인을 파악한다면 와인을 다시 전성기로 이끌 해법도 나올 터. 첫번째 힌트는 검증된 와인에 대한 환호다.

시음회에는 제임스 서클링 포인트 92점 이상을 받은 와인만 참여할 수 있다. 제임스 서클링 팀은 작년 한 해에만

3만9000종에 달하는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점수를 매겼다. 올해 행사에는 대부분 95점 이상 받은 와인들이 나왔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날 선보인 와인 가운데 수십만원 원가를 호가하는 비싼 와인도 물론 많았지만 그만큼 자리를 채운 것이 가성비,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와인이었다.

99점을 받은 돈 멜초 2021 빈티지는 칠레 와인 명가 비나 콘차이토로의 브랜드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양윤주소 물리에가 직접 디켄팅을 해서 따라줬다. 돈 멜초는 프리미엄 포도밭에서도

개성에 따라 구획을 나눠 양조한 뒤 매년 최고의 균형을 이루도록 블렌딩 비율을 바꾼다. 복합적인 향은 물론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이 길게 이어진다.

이탈리아 와이너리 리카솔리의 ‘카스텔로 디 브롤리오’는 최상급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이다. 좋은 해에만 와인을 만드는데 세 곳의 프리미엄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를 섞어 균형감이 뛰어나다. 2020 빈티지는 96점을 받았다.

두번째 힌트는 다양성이다. 기존 평론가들이 보르도 와인이나 레드와인에 주목했다면 제임스 서클링은 시야를 넓혀 다양한 와인 산지를 알렸고, 화이트 와인의 진가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시음회에서는 기존 와인 중주국과 함께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세르비아, 우루과이 등의 와인도 맛 볼 수 있었다.

김수환 금양인터내셔널 부사장은 “프리미엄 와인을 찾는 수요와 함께 가성비 좋은 와인이나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수가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진심을 탐하는 빛나는 인터뷰어

‘진심의 탐닉’은 ‘씨네21’ 김혜리 기자의 인터뷰집이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 관한 기억의 총합이다.’는 경구에 일말의 진심이 담겼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터뷰어는 대체 사람들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책을 집어 들었다가 인터뷰이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터뷰어를 만나게 됐다.



진심의 탐닉
김혜리 지음/씨네21북스

자기 실내로 초대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이는 모습이 떠오른다.

김혜리 기자는 전체 인터뷰 과정에서 ‘섭외’가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섭외는 약속을 얻어내 인터뷰 장소에 마주 앉은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인터뷰 초반에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당신을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말과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동원해 인터뷰이에게 전달하고, 상대가 이 메시지를 접수해 소박하게나마 신뢰를 품을 때에야 비로소 섭외에 성공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인터뷰 말미에서 김혜리 기자는 수줍은 고백을 건넨다. “모든 인터뷰이들은 한때 제 머리를 온통 점령하고 연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움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인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46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다정한 거인

남종영 지음/공출판

거대한 몸짓, 뛰어난 지능,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갖춘 고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누이트의 여신 세드나 전설에, 구약성경 ‘요나서’에, 피노키오 이야기에 고래는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바다의 괴수’였던 고래는 바스크족이 상업적 목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학살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고래기름과 고기, 경랍을 얻기 위해 포경산업에 뛰어든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 세계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인다. 책은 세상 끝에 사는 외로운 괴수, 산업혁명의 등불을 밝힌 경제적 자원, 이윤을 창출하는 수족관의 엔터테이너 고래가 어떤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와 기후변화 해결사로 거듭났는지 설명한다. 452쪽. 2만9000원.



내일 또 만나, 깃대종

김명철 지음/북플랫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을 의미한다. 책은 생물 다양성 보존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깃대종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깃대종이 인간의 행동과 동물, 환경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탐구

한다. 작은 곤충들은 꽃가루 매개자 역할을 하며, 코끼리는 숲의 과밀화를 막아서 건강한 자연을 유지하고, 늑대와 호랑이는 초식동물의 과도한 번성을 막아서 숲과 초원을 보존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깃대종 동물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면, 결국 친환경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316쪽. 2만원.



뽀뽀를 찾아서

수전 E. 하일렌 지음/이길하, 이현주 옮김/비아토르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 사회 여성들의 삶이 획일적으로 억압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책은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엘리트 여성들이 상당한 정도의 주체성, 법적 권리, 경제적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자매 뽀뽀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다.” 성서학자인 저자는 로마서 끝 부분의 두 절을 살마리로 초기 교회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연구하며, 당대 여성들이 살고 행동하고 존재했던 사회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270쪽. 1만7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구영배 “미정산 사태, 발생한 뒤 인지”...경영진 구속 기로 /사진 뉴스스
▲조국 가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상 대 2심도 승소

▲코인 환전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대법 “처벌 가능”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 요구...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일부 승소...“한이 한겹 더 쌓여”
▲검찰, ‘필포폰 추가기소’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월 구형 /사진 뉴스스



① '파도가 그린 나무' 조각상 ② '기억의 소리' 조각상 ③ '달나라 토수니네 집들이' 놀이터 ④ 센서리 가든 ⑤ 팜가든.



자연-도심 넘나드는 특별한 공간 정원 숲 속 '기억의 소리' 오감자극

〈조각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인천 최초 스카이브릿지 단지
산책로, 조각상, 분수대 등 조성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제공

최근 찾아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자이'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호스타, 은쭉, 휴케라 등으로 꾸며진 작은 정원이 함께 연출돼 있었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43번 순환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앞에 송빛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해양2중학교가 오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주변에는 송도랜드마크시티 근린공원, 랜드마크시티 호수변공원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지하 1층~지상 최고 42층, 9개 동, 총 1503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84㎡A·B·C·D·E·F·G ▲98㎡A·B·C·D ▲110㎡ ▲132㎡로 구성됐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인천 최초로 스카이브릿지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이다.

워터프론트 호수 및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현상설계(자격을 갖춘 건축가들의 작품을 제안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뽑는 방식)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지에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내에 산책로, 조각상, 분수대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오감을 자극하며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센서리 가든'에는 알파벳 모양의 돌다리가 있다. 이 가든을 건너 놀이터 '달나라 토수니네 집들이'로 향할 수 있다. 직접 농작물을 길러보는 시간을 가져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팜가든'도 옆에 있었다.

커다란 팜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을 이룬 '엘리시안 가든'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가든 내 설치된 조각상 '기억의 소리'는 나이트의 형상을 분할해 중첩시켜 공간을 형상했다. 나무의 시간을 나이트가 기억하듯이 입주민들에게 행복한 추억만 잇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단지 중앙의 '케이트 하우스(동굴을 탐한 주택)'를 따라 시원한 곡선 수로가 이어져 있었다. 수로를 따라 거닐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고급 휴식 공간 '크리스탈 플라자'가 보인다. 썬베드를 비치해 편하게 쉴 수 있다.

이외에도 포인트가 되는 큰 나무들과 작품이 되는 곡선이 모여 어우러진 '센트럴 플라자', 단지 안을 흐르는 유선형의 시설과 관계 맺은 나무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갤러리 가든' 등 곳곳에 쉼터를 조성했다.

단지 내 설치된 '파도가 그린 나무'는 유기체 형상으로 변형되고 단순화돼 일견 추상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의 이미지는 부서지는 파도나 나무의 형상을 닮았기에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서 서 있다. 이 조각상이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의 조경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것만 같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전경.

/전지원 기자



LG전자 EV 충전 등 B2B 확장 03



Life

흑백요리사 속 밤 티라미수·수육 편의점서 맛보세요 니



텀블러 직접 꾸미고, 세척도 편하게 “친환경은 물론 취향까지 담아가세요”

써모스(THERMOS)는 1904년 독일에서 태어난 글로벌 보온(냉)병 브랜드로 독자적인 진공단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써모스는 2011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로 국내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왔으며, 시장 및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텀블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써모스는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의 텀블러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고객 기대치와 브랜드 만족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 출하까지 우수한 보온(냉) 효력을 위해 제조 공정에서 2번의 전수검사와 2번의 추출검사 등 4차례 이상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써모스 텀블러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 시리즈

써모스의 시그니처 제품인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는 2013년 처음 출시된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2023년도 기준 써모스 전체 판매 수량의 17%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써모스의 기술력이 적용된 초경량 진공단열 텀블러로 ▲500ml 기준 210g로 가벼워 휴대가 용이한 점 ▲편리한 원터치 오픈 방식 ▲다양한 용량 ▲감각적인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써모스는 최근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 라인업을 강화하고자 더욱 다양해진 용량과 컬러로 재정비해 '뉴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를 새롭게 선보였다.

신규 시리즈는 일상 속 잠깐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모스 테라피(THERMOS Therapy)'란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데일리 텀블러'라는 이름에 맞게 편안한 색감의 총 9가지 신규 컬러, 용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용량,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며 간편하게 수분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해당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250ml(155g)의 미니멀한 사이즈도 출시됐다.

◆“마음대로 꾸며봐” 마이 디자인 보틀

써모스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가 늘 휴대하는 텀블러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떼고를 반복하며 즐긴다는 것을 알고, 2019년 '마이 디자인 보틀'을 출시했다.

세척하면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잔여 물이 남아 끈적거리 지저분해지는 것에



마이 디자인 보틀 원터치 타입 시즌2.



뉴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

/써모스

1904년 독일서 시작해 보온병 개발 독자적인 진공 단열기술에 초경량 다양한 용량·컬러로 선택권 넓혀

직접 꾸며 쓰는 '마이 디자인 보틀' 방수 스티커로 알파세대 니즈 적중 신학기 필수템으로 품질대란까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 신제품도 분리세척 용이해 간편한 세척 가능

대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이렇듯 써모스는 육아 경험을 토대로 텀블러에 붙일 수 있는 방수 재질의 스티커를 개발, 알파 세대의 취향을 담은 텀블러 컬러와 스티커 디자인, 음수량을 고려한 '마이 디자인 보틀' 시리즈를 탄생시킨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 물병이 어린 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필수 준비물이 되면서 해당 시리즈는 '신학기 필수템', '국민 물병' 등으로 언급돼 3~4월이 되면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장의 네이밍 스티커와 1장의 랜덤 디자인 스티커가 포함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알파세대 타겟의 니즈를 적중했다.

대표적으로 '마이 디자인 보틀 원터치 타입 시즌2'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사 온라인 공식몰 판매량 1위를 차지했으며, '마·디·보' 전체 시리즈는 최근 4년간 매출이 연평균 72% 성장했다. 이에 써모스는 원터치 오픈 방식과 큰 잠금장치, 생수병 모양의 음용구로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이 디자인 액티비티 보틀',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과 어깨 패드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야외 수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데일리 원터치 파우더 보틀'.

업시 '물병 가방' 수요를 겨냥한 '마이 디자인 보틀 스트랩+원터치 타입'을 연이어 출시하며 대표 키즈 텀블러로 자리매김했다.

◆식기세척기 사용자 니즈도 고려

지난해 9월 써모스는 매일 사용하는 텀블러의 간편한 세척이 가능하도록 특수 도장, 재질을 적용해 스테인리스 텀블러 본체뿐만 아니라 구성품(마개, 음용구, 팩킹 등) 모두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데일리 원터치 파우더 보틀'을 새롭게 출시했다. 텀블러 세척이 번거로운 사용자들의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객 문의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신제품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데일리 원터치 파우더 보틀'은 작년 출시한 이후 반년만에 써모스 온라인 공식몰에서 베스트셀러 톱3에 안착, 간편함을 중시하는 워킹맘 및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간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써모스는 분리 세척이 용이한 마개 구조로 텀블러를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소모품을 별도 판매해 한 번 구매한 텀블러를 오래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조코비치, ATP 상하이 마스터스 8강 진출...100번째 트로피 도전
▲'여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신상우 전 창녕WFC 감독 선임 /사진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남자배구 한국전력 이태호, 포르투갈 VC 비아나와 계약



▲세징야·이동경·이창근·조르지, K리그 9월 '이달의 선수상' 경쟁
▲'잔디 논란' 서울월드컵경기장 교체 예산 15.5억으로 9배 늘려 /사진 뉴시스